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갈라디아서 1 주차 (갈 1:1 ~2:14)
(2014년 12월 28일 - 2014년 1월 3일)
(제 2권 1호)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2권-1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4년 12월 28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I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불 (한국 1000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주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절~5절)

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5.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을바로 해석하기 (원문 해석)

- (1절) 바울, 사도 (Παῦλος ἀπόστολος)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οὐκ ἀπ' ἀνθρώπων)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οὐδὲ δι' ἀνθρώπο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ἀλλὰ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καὶ θεοῦ πατρὸς)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τοῦ ἐγείραντος αὐτὸν ἐκ νεκρῶν.)
- (2절)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형제들이 (καὶ οἱ σὺν ἐμοὶ πάντες ἀδελφοὶ)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ταῖς ἐκκλησίαις τῆς Γαλατίας.)
- (3절) 은혜와 평강이 (χάρις ὑμῖν καὶ εἰρήνη)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ἀπὸ θεοῦ πατρὸς ἡμῶν καὶ κυρίου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 (4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드리신
(τοῦ δόντος ἑαυτὸν ὑπὲρ τῶν ἁμαρτιῶν ἡμῶν.)
이 악한 현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ὅπως ἐξέλθῃται ἡμᾶς ἐκ τοῦ αἰῶνος τοῦ ἐνεστώτος πονηροῦ)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κατὰ τὸ 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 καὶ πατρὸς ἡμῶν.)
-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찌어다] 아멘 (ὃ ἡ δόξα 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τῶν αἰώνων, ἀμή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갈라디아서 개요

갈라디아서는 AD 49년 경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에 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갈리디아 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논증하는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 순수한 복음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배격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전부라는 사실을 논증하는 것이라면 갈라디아서를 읽는 독자들도 같은 시각으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서문이자 편지를 쓰는 저자의 인사말입니다. 통상적으로 편지의 가장 첫부분에는 수신자의 축복을 기원하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서문은 좀 특이하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장황하게 자신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자기 소개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토록 상세하게 자신의 소개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 원문을 해석한 부분 중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적어 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말로 적어 보십시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4절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무엇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2천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면 우리는 어느 세대에 속한 사람일까요? 이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참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1:13~14)]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누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1절을 읽으십시오.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공회를 열게 된 이유와 공회에서 내린 결론을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다른 복음과 저주 [월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1:6~10)

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원어해석하기

- (6절) 나는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Θαυμάζω)
그토록 빨리 그로부터 떠난 [사실]에 ὅτι οὕτως ταχέως μετατίθεσθε ἀπὸ τοῦ
그리스도안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떠나] καλέσαντος ὑμῶς ἐν χάριτι [Χριστοῦ]
다른 복음으로 [εἰς ἕτερον εὐαγγέλιον.]
- (7절) 다른 것은 없습니다 (ὁ οὐκ ἔστιν ἄλλο.)
만약 있다면 [오직] (εἰ μὴ)
당신들을 헛갈리게 하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τινὲς εἰσὶν οἱ παρόσοντες ὑμῶς)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καὶ θέλοντες μεταστρέψ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οῦ Χριστοῦ.)
- (8절) 그러나 우리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조차도 만약 (ἀλλὰ καὶ ἐὰν ἡμεῖς ἢ ἄγγελος ἐξ οὐρανοῦ)
당신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εὐαγγελίζηται [ὑμῖν])
우리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에 나란히 (παρ' ὃ εὐηγγελισάμεθα ὑμῖν.)
저주를 받을지어다 (ἀνάθεμα ἔστω.)
- (9절) 우리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다시 말합니다 (ὡς προειρήκαμεν καὶ ἄρτι πάλιν λέγω·)
만약 아무든지 당신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εἴ τις ὑμῶς εὐαγγελίζεται
당신들이 받은 것에 나란히 (παρ' ὃ παρελάβετε.)
저주를 받을지어다 (ἀνάθεμα ἔστω.)
- (10절)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Ἄρτι γὰρ ἀνθρώπους παίθω ἢ τὸν θεόν·)
또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ἢ ζητῶ ἀνθρώποις ἀρέσκειν·)
만약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고 있다면 (εἰ ἔτι ἀνθρώποις ἤρεσκον.)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었을 겁니다 (Χριστοῦ δοῦλος οὐκ ἂν ἦμη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사도바울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아주 강한 어조로 수신자인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을 질책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질책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7-9절 참조)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완전히 배제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외에 다른 어떤 내용을 더한 것입니까?(8-9절 참조)

6절을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내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Θαυμάζω)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 다우마조 (Θαυμάζω)는 하나님께서 눈 앞에 나타났을 때 놀라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사도바울이 무엇 때문에 놀랐는지 6절에서 찾아 보십시오.

7절을 읽으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찾아 적어 보십시오.

8절과 9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바울은 “우리가 전한 것이 나란히” “당신들이 받은 것이 나란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과 함께 다른 어떤 것이 전해졌고,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았다는 말이 됩니다. 당신은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것을 통한 구원이라는 복음의 핵심 외에 너무도 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의 핵심을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십시오.

바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주’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는 ‘아나테마’ (ἀνάθεμα)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신에게 봉헌된 희생제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축복’에 반대되는 의미로 쓰이는 ‘저주’라는 단어는 카타라 (κατάρα)입니다. 사도바울은 실제로 이 단어를 로마서 9장 3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롬 9:3). 왜 사도바울은 ‘카타라’를 사용하지 않고 ‘아나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요?

10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바울은 자신이 지금 기쁘게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쁨을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교회에 다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관에 대해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1) [화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1:11~17)

1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12.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13.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14.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15.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16.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 또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 갔노라

원어해석하기

- (11절) [왜냐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알게 하고자 합니다, 형제들이여 (Γνωρίζω γὰρ ὑμῖν, ἀδελφοί,)
나에 의해 전해진 복음은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ὸ εὐαγγελισθὲν ὑπ' ἐμοῦ)
인간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ὅτι οὐκ ἔστιν κατὰ ἄνθρωπον.)
- (12절) [왜냐하면 내가 사람에게로부터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οὐδὲ γὰρ ἐγὼ παρὰ ἀνθρώπου παρέλαβον αὐτὸ)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οὐτε ἐδιδόχθην)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한 것입니다 (ἀλλὰ δι' ἀποκαλύψ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 (13절) [왜냐하면] 당신들은 유대교 안에 있을 때 나의 전 행실들을 들었을 겁니다
(ἤκούσατε γὰρ τὴν ἐμὴν ἀναστροφὴν ποτε ἐν τῷ Ἰουδαϊσμῷ,)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고
(ὅτι καθ' ὑπερβολὴν ἐδίωκον τὴν ἐκκλησίαν τοῦ θεοῦ)
그것을 파괴하려 했는지를 (καὶ ἐπόρθουν αὐτήν.)
- (14절) 그리고 내가 유대교에 지나치게 앞서 나갔는지를 (καὶ προέκοπτον ἐν τῷ Ἰουδαϊσμῷ)
나의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 같은 시대를 산 많은 사람들보다
(ὑπὲρ πολλοὺς συνηλικιώτας ἐν τῷ γένει μου,)
[그래서] 나는 나의 조상들의 전통에 지나치게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περισσότερως ζήλωτῆς ὑπάρχων τῶν πατρικῶν μου παραδόσεων.)
- (15절) 그러나 나의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나를 분리해 낼 때, 하나님이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Ὅτε δὲ εὐδόκησεν [ὁ θεὸς] ὁ ἀφορίσας με ἐκ κοιλίας μητρὸς μου)

- 그리고 그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καὶ καλέσας διὰ τῆς χάριτος αὐτοῦ)
- (16절) 내 안에서 그의 아들을 계시시기를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ἀποκαλύψαι τὸν υἱὸν αὐτοῦ ἐν ἐμοί.)
 그를 이방 가운데 전파하기 위해 (ἵνα εὐαγγελίζωμαι αὐτὸν ἐν τοῖς ἔθνεσιν.)
 나는 즉시 혈육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니다 (εὐθέως οὐ προσανεθέμην σαρκὶ καὶ αἵματι)
- (17절) 나보다 먼저 사도된 분들을 향해 예루살렘에 올라 가지도 않았습니니다
 (οὐδὲ ἀνῆλθον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πρὸς τοὺς πρὸ ἐμοῦ ἀποστόλους.)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ὄλλὰ ἀπῆλθον εἰς Ἀραβίαν καὶ πόλιν ὑπέστρεψα εἰς Δαμασκόν.)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인간들에게 전수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바로 직전에 자신이 전한 복음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신 후 사도바울이 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11 절과 12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면서 세 개의 부정문을 사용하고 단 한 개의 긍정문을 사용합니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한 복음을 다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가 아니고,도 아니고,도 아니다. 복음은이다.)

13 절과 14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바울은 유대교에 있었을 때의 자신의 신앙관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그의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의 행적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빌립보서 3장 5절~6절을 읽으십시오. (“내가 팔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빌 3:5-6)). 사도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간단하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였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간들이 스스로의 열심으로 온전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또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좀더 완전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지는 않나요? 있다면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15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그를 불렀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를 통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당신을 부르신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그런 순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16절과 17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온 그 복음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지 인간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며 또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당신은 왜 사도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변증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설교를 들을 때, 복음 전도를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언제든지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2) [수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1:18-24)

18. 그 후 삼년만에 내가 게바를 심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십 오일을 유할새
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21.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22.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23.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24.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원어해석하기

- (18절) 그때로부터 3년 후에 (Ἐπειτα μετὰ ἔτη τρία)
내가 게바를 방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ἀνῆλθον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ἱστορήσαι Κηρῶν)
그리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습니다(καὶ ἐπέμεινα πρὸς αὐτὸν ἡμέρας δεκαπέντε.)
- (19절) 그러나 다른 형제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ἕτερον δὲ τῶν ἀποστόλων οὐκ εἶδον)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εἰ μὴ Ἰάκωβον τὸν ἀδελφὸν τοῦ κυρίου.)
- (20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에게 쓰고 있습니다.[따라서] 거짓말이 아닙니다.
(ἃ δὲ γράφω ὑμῖν, ἰδοὺ ἐνώπιον τοῦ θεοῦ ὅτι οὐ ψεύδομαι.)
- (21절) 그 후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Ἐπειτα ἦλθον εἰς τὰ κλίματα τῆς Συρίας καὶ τῆς Κιλικίας.)
- (22절) [당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 나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ἤμην δὲ ἀγνωστέος τῷ προσώπῳ ταῖς ἐκκλησίαις τῆς Ἰουδαίας ταῖς ἐν Χριστῷ.)
- (23절) 오직 그들이 [다음과 같이] 들었습니다 (μόνον δὲ ἀκούοντες ἦσαν)
“전에 한 때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무너뜨리려 했던 그것을 전하고 있다”
(ὅτι ὁ διώκων ἡμᾶς ποτε νῦν εὐαγγελίζεται τὴν πίστιν ἣν ποτε ἐπόρθει.)
- (24절) 그리고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καὶ ἐδόξαζον ἐν ἐμοὶ τὸν θεόν.)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사도바울이 이처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자신의 행적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인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올바른 복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절대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대 정신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당신만 옳으나?”라는 이야기를 들곤 합니다. “구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사상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18 절과 19 절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그로부터 3년 후에” “15 일을 유할 새”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기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구태여 ‘3년후’ ‘15 일’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가 베드로와 15 일을 함께 있으면서 주의 형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형제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 외에 다른 형제들을 보지 못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바울이 반드시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20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바울은 자신이 이 글을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는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정도 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또는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 상당한 회의를 품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사도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보다 더 근사하고 그럴 듯하게 생각한 메시지가 무엇이였을까요?

21 절부터 23 절을 읽으십시오.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를 비난하거나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전해 들은 것은 무엇이였습니까?(23 절 참조)

24 절을 읽어 보십시오. 예루살렘교회의 교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바울이 이토록 구구절절 자신의 행적이나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변증하는 대상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자신이 온전히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정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듣고 믿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예,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진리의 복음을 위하여 [목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1~5)

1. 십사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 갔노니
2.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 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3.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5.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본문 올바르게 해석하기 (원문해석)

- (1절) 그로부터 14년 후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Ἐπειτα διὰ δεκατεσσάρων ἐτῶν πάλιν ἀνέβην εἰς Ἱεροσόλυμα)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동반하고 (μετὰ Βαρναβᾶ συμπαραλαβὸν καὶ Τίτον·)
- (2절) 그러나 내가 계시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ἀνέβην δὲ κατὰ ἀποκάλυψιν·)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출했습니다 (καὶ ἀνεθέμην αὐτοῖς τὸ εὐαγγέλιον)
[그 복음은]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ὁ κηρύσσω ἐν τοῖς ἔθνεσιν.)
그러나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사적으로 (κατ' ἰδίαν δὲ τοῖς δοκοῦσιν.)
내가 헛되게 달려 오지 않았고 [지금도] 달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μή πως εἰς κενὸν τρέχω ἢ ἔδραμον.)
-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한 디도조차도 (ἀλλ' οὐδὲ Τίτος ὁ σὺν ἐμοί.)
그는 헬라인입니다 (Ἕλληνας·)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ἠναγκάσθη περιτεμεῖσθαι·)
- (4절) 그러나 비밀리에 들어 온 가짜 형제들 때문에 (διὰ δὲ τοὺς παρεισάκτους ψευδαδελφούς·)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염탐하기 위해 들어온 자들입니다
(οἵτινες παρεισῆλθον κατασκοπήσαι τὴν ἐλευθερίαν ἡμῶν ἣν ἔχομεν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들어온 자들입니다] (ἵνα ἡμᾶς καταδουλώσουσιν.)
- (5절) 우리는 그들에게 한 시간도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οἷς οὐδὲ πρὸς ὥραν εἴξαμεν τῆ ὑποταγῆ·)
복음의 진리가 항상 당신들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
(ἵνα ἡ ἀλήθεια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διαμείνη πρὸς ὑμᾶς.)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 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 가운데 전하고 있는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사도들 중 지도자들로 추정)에게 제출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인 디도의 할례 문제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14년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4년이라는 말은 그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떨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14년간 전한 복음을 제출했는데 제자들의 이의가 없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는 복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동반하고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바나바는 당연히 함께 했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디도를 동반하고”(συμπαράλαβὸν καὶ Τίτον)라고 말하며 디도를 동반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2절에 의하면 바울이 교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제출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만 사적으로 그 복음을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읽으십시오.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습니다.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그래도 그는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디도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 절부터 5 절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3 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줄 다 알아러라”(행 16:3). 왜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디모데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의 표식입니다. 그들은 할례뿐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식과 절기, 장소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당에만 들어 오면 좀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신성시하는 것이지요. 당신의 생각에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신처럼 신성시하고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4 절과 5 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염탐하기 위해 비밀리에 들어 온 거짓형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이들은 이단이 아니고 자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들도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온전해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이방인의 사도 바울 [금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6~10)

6.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7. 도리어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8.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9.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레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10.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본문 앞부분 해석하기 (원문에서)

- (6절) 그러나 영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Ἀπὸ δὲ τῶν δοκούντων εἶναι τι,
(본래 어떤 사람들이든지 나는 상관 안합니다)(- ὅποιοί ποτε ἦσαν οὐδέν μοι διαφέρει·)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을 받지 않으십니다)(πρόσωπον [ὁ] θεὸς ἀνθρώπου οὐ λαμβάνει·)
그들 중 누구도 나에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ἐμοὶ γὰρ οἱ δοκῶντες οὐδὲν προσανέθεντο,)
- (7절) 그 반대로 (ἀλλὰ)
그들이 [그들] 눈 앞에서 확인함으로 (τοὺναντίον ἰδόντες)
내가 무할레자들의 [에게] 복음을 확신시켜 온 사실을
(ὅτι πεπίστευμαι τὸ εὐαγγέλιον τῆς ἀκροβυστίας)
마치 베드로가 할레자들에게 [한 것 처럼] (καθὼς Πέτρος τῆς περιτομῆς)
- (8절) 베드로에 의해 할레자를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한 그 분이
(ὁ γὰρ ἐνεργήσας Πέτρον εἰς ἀποστολὴν τῆς περιτομῆς)
역시 나에게 의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ἐνήργησεν καὶ ἐμοὶ εἰς τὰ ἔθνη,)
- (9절) 그리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καὶ γνόντες τὴν χάριν τὴν δοθεῖσάν μοι,)
야고보, 게바, 그리고 요한이 (Ἰάκωβος καὶ Κηρῶς καὶ Ἰωάννης)
이들은 기둥같이 여겨지는 분들입니다 (οἱ δοκῶντες στῦλοι εἶναι,)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 손을 주었습니다 (δεξιὰς ἔδοκαν ἐμοὶ καὶ Βαρναβᾶ κοινωνίας,)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하고 그들은 할레자들을 향하도록 [하였으며]
(ἵνα ἡμεῖς εἰς τὰ ἔθνη, αὐτοὶ δὲ εἰς τὴν περιτομήν·)
- (10절) 단지 그들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μόνον τῶν πτωχῶν ἵνα μνημονεύωμεν,)
나도 그것들을 하기 위해 강하게 갈망했습니다 (ὁ καὶ ἐσπούδασα αὐτὸ τοῦτο ποιῆσαι.)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사도바울은 1 장부터 이어 온 자신의 사도권과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정당성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 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사도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계시했을 뿐 아니라 사도권을 준 분이 누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8절 참조)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사도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교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확인 한 것은 무엇입니까?(7절)

복음을 계시하는이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개개인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당신은 복음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당시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설명으로 들었습니까?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복음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권리이자의 의무입니다. 당신은 그 권리이자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거나 이행하고 있습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9절과 10절을 읽어 보십시오. 사도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주의 형제)와 요한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3명의 사도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오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이 교제의 오른 손을 내밀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절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도바울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바울도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에 열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과 고아들 등 소외 받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10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강조하고자 한 것도 아닙니다. 10절 말씀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 본질적인 문제에 매달리다가 본질적인 문제인 복음의 문제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 또는 당신이 속한 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베드로가 책망받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11~14)

11.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12.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14.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본문 열락로 해석하기 (외문해석)

- (11절)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Ότε δὲ ἦλθεν Κηρῶς εἰς Ἀντιόχειαν,
내가 그에게 책망을 주었다 (κατὰ πρόσωπον αὐτῷ ἀντέστην.)
왜냐하면 그가 책망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ὅτι κατεγνωσμένος ἦν.)
- (12절) 야고보로부터 어떤 이들이 오기 전에 (πρὸ τοῦ γὰρ εἰθεῖν τινας ἀπὸ Ἰακώβου)
그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μετὰ τῶν ἐθνῶν συνήσθην·)
그러나 그들이 왔을 때 (ὅτε δὲ ἦλθον,
그는 뒤로 물러났고 [이방인들로부터] 그 자신을 구별하였습니다
ὑπέστειλεν καὶ ἀφώριζεν ἑαυτόν)
할례(주의)자로부터 온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φοβούμενος τοὺς ἐκ περιτομῆς)
- (13절)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로 외식에 동조하여 그에게 합류하였고
(καὶ συνυ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καὶ] οἱ λοιποὶ Ἰουδαῖοι.)
그 결과 바나바도 이끌려서 그의 외식에 합류하였습니다.
(ὥστε καὶ Βαρναβᾶς συναπήχθη αὐτῶν τῇ ὑποκρίσει.)
- (14절)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똑바로 걷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을 때
(ἀλλ' ὅτε εἶδον ὅτι οὐκ ὀρθοδοῦσιν πρὸς τὴν ἀλήθειαν τοῦ εὐαγγελίου.)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τῷ Κηρῷ ἔμπροσθεν πάντων·)
당신이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고 유대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εἰ σὺ Ἰουδαῖος ὑπάρχων ἐθνικῶς καὶ οὐχὶ Ἰουδαϊκῶς ζῆς)
어떻게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합니까?
(πῶς τὰ ἔθνη ἀναγκάζεις ἰουδαΐζει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성경에서 가장 어색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도 중의 한사람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실을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만으로 베드로가 잘못했다거나 바울이 베드로보다 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입니다. 체면치레를 좋아하고 남들에게 자신을 위장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단면을 유대주의라는 프리즘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 절과 12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 절에는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온 것입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침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하자 베드로는 그 자리를 피해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자신을 이방인들로부터 구별했을까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과 그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유대주의의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자신들을 다른 존재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 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2 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쓰여졌습니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고 의미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 A: 야고보로부터 어떤 이들이 오기전
- B: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음
- C: 그들이 왔을 때
- B': 이방인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함
- A': 할례[주의]자로부터 온 그들

사도 바울은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A)을 어떻게 다시 (A') 설명합니까?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즉 할례[주의]자로부터 온 사람들—이 오자 베드로의 행동이 100% 돌변합니다. 12 절 마지막에 왜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합니까?

당신 생각에 베드로는 할례주의자였을까요 아니면 무할례주의자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할례주의와 무할례주의를 왔다갔다하는 기회주의자였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교회가 완벽한 모델이 아닙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교회가 정립되어 가는 단계였습니다.]

13 절과 14 절을 읽으십시오. 바나바도 베드로의 의식에 합류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나바를 책망하지 않고 베드로를 책망한 사실을 말합니다. 왜 사도바울은 베드로만 나무랐을까요?

14 절을 읽으십시오. 사도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향하여 똑바로 걷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보았을 때”라고 말합니다. 사도바울이 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갈 3:28 참조]

14 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을 적으십시오. 나에게서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